

## ‘상징적 부흥’이란 무엇인가?\*

야마 요시유키(山泰幸)\*\*

### 시작하며

일반적으로 부흥 과정을 생각할 때 재난 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기, 가스, 수도 등 파괴된 라이프 라인의 복구이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자연과학 분야, 특히 토목공학적인 지식과 기술이다. 그리고 복구의 연장선상에 부흥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부흥은 보통 파괴된 지역을 원래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토목공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동원하여 이전보다 더 좋게 도시계획의 발본적인 재검토와 재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부흥 개념이 토목공학적인 지식과 기술에 의거하고 있는 한, 부흥의 내용도 토목공학적으로 보다 좋은 것을 만들려는 것으로 귀착된다.

하지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면에 대한 배려, 공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소프트라는 말로 애매하게 표현되

---

\* 본 논문은 2006년 12월에 간행된 『첨단사회연구(先端社会研究)』 제5호 「특집 재해부흥제도의 연구(特集 災害復興制度の研究)」(関西大学出版会)에 게재된 「『상징적 부흥』이란 무엇인가(『象徴的復興』とは何か)」의 번역이다. 토목공학적인 발상에 근거한 종래의 ‘부흥’개념을 재검토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부흥을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부흥을 느끼는 감정이나 그 감정을 만들어내는 ‘상징적 부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기한 것이다.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많은 피해지에서 ‘부흥의 상징’ 만들기가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다. 이는 부흥이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가 정체되고 종래의 개발주의적인 도시계획의 연장으로는 부흥이 곤란한 가운데 ‘상징적 부흥’이라는 사고방식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간세이가쿠인대학 교수.

고 있는 경험적인 지식을 명확하게 개념화하고, 이론적으로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관심에서 본고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상징적 부흥’이라는 개념이다. 본고의 목적은 상징적 부흥이라는 개념에 대해 주로 인류학에서의 의례론(儀禮論)과 상징연구의 성과를 살펴보고 그 아웃라인을 소묘하는 것이다.<sup>1)</sup>

## 2. 상징적 부흥이란 무엇인가?

### 2.1 의례로서의 부흥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일본어로는 ‘결말을 짓다(ケリヲツケル)’라던가 ‘결말을 내다(カタヲツケル)’라는 말로 표현한다. 비근한 일상생활의 트러블에서부터 법에 저촉되는 사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이나 부처님과의 관계까지 어떤 트러블이 일어나면 ‘결말을 지을(ケリヲツケル)’ 필요가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면 ‘결말이 났다(カタガツイタ)’라는 말로 표현되는 느낌을 실감하게 된다. 우선 인간에게는 이러한 느낌이 있음을 확인해 두고 싶다.

법적으로는 타당한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당사자 모두가 납득할 수는 없다. ‘응어리’가 남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고액을 배상받아도 피해자에게 불만이 남는 경우도 있고, 돈을 전혀 받지 못해도 당사자들이 해결됐다는 실감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 부흥에 관해서도 사람들이 ‘이걸로 부흥됐구나’하고 깨닫는 상황은 도로와 시설의 정비나 수입의 안정, 개개의 인간관계 회복으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판단이 내려진다고 봐야 한다. 즉 문제 상황의 해결에는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간주되는 통상의 기준과는 다른 별개 레벨의 판단기준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런 레벨에서 납득할 수 있는 해결은 매우 의례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흥 또한 의례적

1) 본고는 2005년 1월 14일에 고베국제회의장(神戸国際会議場)에서 개최된 제2회 전국 피재지 교류집회에서 필자가 보고한 요지를 가필, 수정한 것이다. 또 ‘상징적 부흥’이라는 개념은 2005년 6월 11일에 개최된 간사이카쿠인대학(関西学院大学) 재해부흥제도연구소의 제1회 부흥사상 만들기 부회(復興思想づくり部会)에서 제기된 것이다.

인 행위로 획득되는 상태라면 이는 소박한 실체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매우 상징적인 개념이라 해야 한다.

부흥이 상징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상징의 구조 및 형성의 메커니즘에 관한 인류학이나 사회학 등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원용(援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징을 만들어 내고 기능하게 하는 방법을 원용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부흥됐다는 느낌(復興感)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상징을 창출하는 의례에 대한 제작론(製作論)적 시점을 통해 부흥감(復興感)을 창조하고 조작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 2.2 상징으로서의 커뮤니티

피재 커뮤니티의 부흥을 위해 상징이나 그것을 만들어내는 의례에 착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뮤니티 자체가 상징적으로 구축된 존재라는 인식이 배경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류학에서 빅터 터너(Victor Turner)의 의례론 이후에 큰 전개를 보인 인식이고[Turner 1996=1969], 현재의 인문사회과학에서는 보다 일반화되어 커뮤니티를 문화적 구축물로 보는 인식이 침투해 있다. 예를 들면, 앤서니 코헨(Anthony Cohen)의 '상징적 커뮤니티'론[Cohen 2005=1985]이나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상상의 공동체'론[Anderson 1997=1983] 등을 그 대표적 저작으로 들 수 있다.

커뮤니티 자체가 상징적 혹은 문화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에 입각하면 커뮤니티 부흥도 사람들의 상징적인 의미체계 레벨에서 실현되어야만 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의 논의이다. 그의 '극장국가'론은 이전에 존재했던 인도네시아 발리의 '네가라'라는 국가가 의례 안에서 실현된 것이고, 의례 그 자체가 국가였다고 하는 것으로 종래의 의례에 대한 견해를 쇄신한 의례론으로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대인류학이 해석학적 분석을 대부분 문화의 '상징적'인 측면에 한정하는 것은

단순한 편견이며, 이는 ‘상징’과 ‘현실’을 대치시키고, 그 대비를 공상과 각성, 비유와 원의(原義), 난해와 명료, 미학과 실용, 신비와 세속, 장식과 실체의 대비로 파악하는, 역시 19세기가 남긴 사고방식에서 생겨난 것이다. ……현실이라는 것은 비현실과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그려진 것이다[Geertz 1990=1980:162]

통상 ‘현실적’이라는 말이 가리키고 있는 상태는 ‘상징적’인 것과 대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어츠의 견해에 따르면 현실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의 구별은 겉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 오히려 현실적인 것도 상징적인 것이 상으로 상상된 것이다. 현실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의 경계는 생각 외로 애매하고 실은 서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로나 주택을 현실에 속하는 물질적 자원이라고 한다면, 종교적 건조물이나 축제 등은 상징으로 귀속되는 문화적 자원이 되는데, 이와 같이 보통 대비적으로 생각하는 현실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 양쪽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서의 상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의미의 상징이 실현되는 것은 사람들의 커뮤니티 그 자체에서이다.

커뮤니티의 부흥을 위해서는 도로나 주택 등의 물질적 자원과 종교적 건조물이나 축제 등 문화적 자원 양쪽 모두를 포함하는 복구·부흥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복구·부흥의 과정과 병행하여 이들을 포괄하는 상징적인 레벨에서의 부흥이 실현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상징적 부흥이다.

### 3. 부흥의례론

#### 3.1 의례의 과정

부흥을 의례적으로 획득되는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피재에서 부흥까지의 과정을 의례의 과정에 견주어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단서가 되는 것이 의례 과정의 기본구조를 명확하게 정리한 반 겐넵(Arnold van Gennep)의 통과의례론이다[Gennep 1995=1909]

반 겐넵의 통과의례론은 어떤 상태에서 별도의 상태로 이행될 때 행해지는 의례를 분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그는 의례를 '분리의례(分離儀禮)', '과도의례(過度儀禮)', '통합의례(統合儀禮)'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모든 의례가 시작, 중간, 끝의 세 단계로 나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리', '과도', '통합'의 세 단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의례에 따라서는 각각의 특징이 개별적으로 발달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장례는 분리의례가 결혼식은 통합의례가 중심적인 의례가 된다.<sup>2)</sup>

그런데 이 모델을 참조로 하여 부흥 과정을 도식화해 보자. 우선 도식1은 통상의 부흥과정이다.

도식1 피해(-) → 복구(0) → 부흥(+)

피해라는 사건은 일상생활의 물리적인 파괴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라이프라인 등의 복구 과정이 진행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흥이 달성된다. 이 3단계는 피해 이전의 상태를 제로라고 한다면 피해로 인해 마이너스가 되고, 복구에 의해 제로로 돌아와, 부흥으로 플러스로 바뀐다는 우상향 그래프적인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마이너스나 플러스라고 하는 평가기준은 어디까지 토목공학적인 기준이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여기에서 부흥 개념은 피해 이전보다 보다 좋은 상태로 재개발한다는 개발주의적인 발상과 결합하고 있고, 복구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질적인 차이는 없다.

한편, 의례 과정을 참고로 해서 모델화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도식2 피해(분리) → 복구·부흥(과도) → 상징적 부흥(통합)

부흥의 과정을 의례 과정으로 이해하면 피해라는 사건은 일상생활에서 상징적인 이탈을 의미하게 된다. 다음으로 이제까지의 부흥개념은 토목공학적인 사고에서는 최종단계에 위치해 있지만, 의례의 과정에서는 통합의례의 역할을 반드시 달성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점에서 복구와 같은 과도적 단계에 위치

2) 반 겐넵의 의례론 외에 인류학의 주요한 의례론 개설은 아오키[青木 1984]를 참조

지어지게 된다. 마지막에 의례 과정의 최종단계인 통합의례가 된다. 이 의례에서 사람들은 ‘이걸로 부흥됐구나’고 하는 실감을 얻게 된다. 이 단계를 이제까지의 부흥 개념을 대신해서 상징적 부흥이라 부르기로 한다.

더 나아가 상징적 부흥은 이제까지의 부흥 개념과는 달리 반드시 피해 이전의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원래 상태로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문자의 의미대로 상징적인 의미체계 레벨에서는 회복된 것으로 느껴지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sup>3)</sup>

### 3.2 부흥의례의 유형

이상의 내용에서 부흥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눈 의례의 과정으로 이해했을 경우, 상징적 부흥은 그 최종단계에 위치하게 된다.

부흥이 상징적인 개념이라고 할 경우 그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부흥이 토목 공학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의해 달성된 상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즉 상징적인 의미체계 레벨에서 획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체계 레벨에서 획득된 부흥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부흥이 달성되었는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부흥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부흥을 눈에 보이도록 상징적으로 표현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부흥을 표현하는 데 있어 유효한 수단은 각종 이벤트 실시 또는 기념물의 건립 등이다. 부흥을 표현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여기에서는 ‘부흥의례’라 부르기로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흥의례’는 에밀 뒤르켐(Émile Durkheim)이 정리한 의례의 유형 중 ‘모의적 의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Durkheim 1975=1912:210-242]. 뒤르켐은 토템동물의 풍요를 보증하는 모의적 의례(模擬的儀禮)를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들 의례는 모두 같은 유형에 속한다. 이들이 의존하고 있는 원리는 보통 부당

3) 인류학에서는 치료 의례가 당 사회의 신화=코스몰로지 속 병의 원인이나 치유의 과정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상징적인 레벨에서 회복을 도모하는 점에 주목해 왔다. 예를 들면 레비스트로스(Levi Strauss)의 ‘상징적 효과’에 관한 논의[Levi Strauss 1972=1958]를 참조

하게도 공감적 주술이라 불리는 것의 기저에 가로놓여 있는 원리 중 하나이다.

이들 원리는 통상 두 가지로 요약된다. 제1원리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할 수 있다.

— 즉, 어떤 대상물에 도달한 것은 이 대상물과 무언가의 접근 또는 연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것에도 도달한다. 따라서 부분은 전체에 영향을 준다. …… 제2원리는 통상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낳는다는 정식(定式)으로 요약된다. 어떤 존재나 상태의 묘사는 이 존재나 상태를 낳게 한다. 바로 지금 기술한 모든 의례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은 이 표어이다.[Durkheim 1942=1912:218-219]

이상 뒤르켐은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James George Frazer)가 제창한 공감적 주술에 관한 유명한 두 가지 원리를 예로 든 후에 후자에 해당하는 모의적 의례를 평가하여 '전자에는 전염적 교통밖에 없고, 후자에는 생산과 창조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프레이저는 말한다. '전염적 주술(contagious magic)이 접근 관념에 입각해 있는 것처럼 유감적 주술(類感的呪術, magie homéopathique)—그는 의체적(擬體的) 주술이라는 말 대신 이 표현을 골랐다—은 유사 관념에 입각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되고 있는 행사의 독자적인 특징을 무시하는 것이다. 일면적으로 보면 프레이저의 정식은 저주의 경우에도 조금은 적용 가능할 것이다. 사실 여기에서는 별개의 두 가지가 그 부분적 유사성 때문에 서로 동일시되고 있다. 즉 그 두 가지는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도형적으로 표상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관찰해 온 의체적 의례에서는 이미지만이 주어지 있다.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토템종(種)의 신세대는 아직 기대, 게다가 확실하지 않은 기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틀리지도 않고, 틀리지 않지도 않다. 동일시라는 것이 애초에 문제가 될 수 없다. 거기에는 고유의 창조가 있다[Durkheim 1975=1912:220-221]

뒤르켐의 해설을 참고로 하면, 부흥 또한 사람들이 확실히 부흥이라 인식하는 정해진 모델이 미리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주어지 있는 것은 부흥의 이미지에 대한 상징적 표현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흥의례를 통해 상징적인 이미지로 창조된 부흥이 상징적 부흥이다.<sup>4)</sup>

부흥이 의례를 통해 상징적인 이미지로 창조된다고 한다면, 그 상징적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부흥으로 인식되는 것이어야만 한다. 부흥의례의 제작자는 이 점에 유의해 피해 커뮤니티 사람들의 부흥 이미지를 사전에 조사함과 동시에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문제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해결을 이해해 왔는가, 예를 들면 돌연사나 병 등 불행에 대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서의 회복을 어떻게 이해해 온 것인가에 대해 당 커뮤니티의 전통적인 관념체계, 의례 체계에 표현된 상징에 관한 민족지적인 지식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sup>5)</sup>

### 3.3 부흥의례의 기능

그런데 부흥의례에는 객관적인 기준과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현재적(顯在的) 기능과 잠재적 기능,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상정할 수 있다.

부흥의례에는 현재적(顯在的)으로는 부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능이 있다. 부흥의례가 집행됨으로써 사람들은 부흥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부흥의례의 현재적 기능이 작동하는 것은 통상 토목공학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의미나 인구학적인 의미에서도 즉 객관적인 기준에서 부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이것을 부흥인정기능이라 부르기로 한다.

한편 부흥인정기능과는 별도로 잠재적으로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다. 그것은 부흥의례가 부흥 그 자체를 만들어 내는 기능이다. 토목공학을 비롯한 객관적인 기준에서는 부흥이라고 간주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상징적인 레벨에서 부흥은 창조될 수 있다. 이것을 부흥창조기능이라 부르기로 한다.

객관적인 기준에서 충분히 부흥이라 간주되는 상황이어도 사람들이 부흥이라 간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흥의례를 실시함으로써 그 부흥인정기능을 통해 사

4) 여기에서 뒤르켐이 모의적 의례의 예를 든 이유는 인과율을 검토하는 것에 주된 목표가 있고, 사고 범주의 사회적 기원을 주장하는 뒤르켐에게 이 점은 극히 중요하다.

5) 메리 더글라스(Mary Douglas)에 의하면 인간 커뮤니케이션에는 세세한 설명이 필요한 정밀 코드와 그것이 불필요한 한정 코드의 구별이 있고, 의례 등에 표현되는 상징은 정해진 집단내부에서 이해되는 것을 전제로 한 한정코드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으로 간주한다[Douglas 1983=1970]. 이 점 때문에 외부자는 의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래서 부흥의례의 제작자는 피해 커뮤니티의 상징적 표현을 판단의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람들이 부흥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역으로 객관적인 기준에서는 부흥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태여도 잠재적 기능인 부흥창조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부흥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보통은 객관적으로는 부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부흥의례를 실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흥인정기능만이 현재적으로는 기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부흥 그 자체를 창출하는 부흥창조기능 쪽이다. 왜냐하면 후자의 부흥창조기능을 전제로 하여 전자의 부흥인정기능도 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의례의 창조적인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점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재인식하게 된 것은 구마모토현(熊本県) 미나마타시(水俣市)의 전 시장, 요시이 마사즈미(吉井正澄)씨와 인터뷰할 때 들었던 에피소드를 통해서였다<sup>6)</sup>. 출판된 서적에 요시이씨가 말한 내용이 있으므로 거기에서 해당부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공식사죄로 찬부(贊否)

1956년 5월 1일 미나마타병 공식발견에 맞춰 미나마타시에서는 이 날 미나마타병 희생자의 위령식이 거행됩니다. 94년 제가 시장으로서 처음 맞이한 위령식은 이제 3회째였습니다.

위령식은 제가 시의원이었을 때 자민당 의원단에서 시 집행부에 촉구하여 24년 만에 재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1년째도 2년째도 환자단체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교묘하게 구슬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고 경계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른바 '주인없는 위령식'이었습니다. 그리고 3회째, 시장이 된 후 첫 위령식에서 이 기회에 미나마타병에 대한 기본적 자세를 선명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과오를 솔직히 사과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

위령식 당일, 거친 성격인 사사키 기요토(佐々木清澄, 미나마타병 환자 연합회장) 씨가 있었습니다. 하시구치 사부로(橋口三郎, 제3차 소송원고단장)씨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단체 대표가 나란히 앉아 있는 얼굴을 보았을 때는 정말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디 편히 잠드시길' 하는 심정이었습니다.[進藤, 2002:23-24]

6) 2003년 12월 27일에 오기노 마사히로(荻野昌弘)와 공동조사할 때에 요시이씨 자택에서 이루어진 인터뷰이다.

요시이씨는 인터뷰에서 대답하기를 그 당시 각 환자단체의 위령식 참가여부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단체 대표가 참가한 것을 보고 이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강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물론 그것만으로 구체적인 문제가 조금도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령식에 환자단체가 참가할지 안할지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 그 후 이른바 ‘정치해결’에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시장이라는 위정자의 입장에서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를 의례의 힘으로 수복하려고 하는 시점이 있다. 이것을 의례의 제작론적 시점이라 부르는 것이다.

의례의 제작론적 시점은 의례가 그것에 관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종류의 공동성을 확립하는 기능이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같은 의례에 참가하고 있다는 경험적인 사실을 참가자들이 공유함으로써 여기에 질서감각이 양성된다. 그리고 이 점이 집단을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정자에게는 특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 케이스의 경우 의례를 통해 상징적인 레벨에서의 ‘해결’이 실현되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정치해결’이라는 현실적인 레벨에서의 해결을 촉구하게 되었다. 즉 부흥의례의 잠재적 기능에 해당하는 부흥창조기능이 발동한 좋은 예라 볼 수 있다.

상징적 부흥이란 현재적 또는 잠재적인 의례의 기능을 통해,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체계 레벨에서 부흥이 실현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부흥감을 획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객관적으로는 부흥에 이르지 못한 상태여도 상징적 부흥을 이른바 ‘마중물’로 삼아 객관적으로도 부흥이 촉진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징적 부흥이라는 관념의 가장 매력적인 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에는 상징적 부흥이라는 관념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보다 상세한 검토를 하기로 한다.

## 4. 상징의 부흥

### 4.1 문화적 자원의 정비

여기에서는 2005년 2월 12일에 간세이가쿠인대학(関西学院大学)에서 개최된 「제1회 피재지 교류 집회(第1回被災地交流集会)」에서 니가타현 주에쓰 지진(中越地震)의 피재지 야마코시무라(山古志村, 현재는 나가오카시(長岡市)에 합병됨)의 촌장(村長), 나가시마 다다요시(長島忠美)의 발언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의연금 일부를 주택재건에 충당하고 있다는 것, 촌(村)에서 지원받은 것을 생활재건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저희들은 역시 현(県)의 경비로, 개인과는 달리 촌(村)에 독자적으로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른바 역사라던가 문화라던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후원하지 않으면, 돌아왔을 때 좀처럼 원활하게 재생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예측을 하고 있어서, 문화적인 것이라든가 산업적인 것은 역시 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조금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 촌에서 그렇게 큰 금액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대부분의 문화적인 것들이 소실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역시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역사, 문화를 제대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과 주택 재건의 문제가 잘 맞물려 가면 그런 지역으로서, 그렇게 하면 지역이 재생되고 촌으로서 재생되는 곳에 역시 쓰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関西学院大学災害復興研究所編 2005:42-43].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역사, 문화를 제대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역사나 문화 등 지역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문화적 자원의 정비, 보존을 나가시마씨가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나가시마씨는 촌민에 따라 피해의 정도나 놓여 있는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언급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계속 긴 역사 속에서 생활을 공유해 왔고, 그리고 공유의 책임감을 가지고 문화를 키워 온 것을 생각하면, 단지 촌민의 기분은 함께 촌으로 돌아와 아이

들에서부터 노인들까지 다시 모두가 서로 의지하는 생활을 재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

분명히 도시라던가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 비하면 우리들은 중산간지역(中山間地域: 도시나 평지 이외의 중간농업지역과 산간농업지역의 총칭)이자 험준한 곳으로 매우 험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눈이 내려 지금도 3미터 70센티의 눈 아래에 매몰되어 있는 것에서 보듯이 폭설지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저 땅을 생활 터전으로 골랐습니다. 험난함 중에 역시 우리들은 선조 때부터 고생을 하면서 쌓아온 여러 생각이나 재산을 물려받아 자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공유하면서 때로는 즐거움을 공유하면서 만들어 온 것은 우리들 중산간지역, 그리고 농촌의 문화이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関西学院大学災害復興研究所編 2005:42-43]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문화적 자원의 보존, 정비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의 커뮤니티 자체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역사와 문화로 성립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전제로 하여 커뮤니티 아이덴티티로서의 역사와 문화의 정비, 보존이 부흥과 연결된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 4.2 상징의 부흥과 상징적 부흥

2005년 3월에 야마코시무라가 제출한 『야마코시 부흥플랜 돌아가자 야마코시로(山古志復興プラン 帰ろう山古志へ)』를 보았다. 귀촌의 조건으로 12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열거하자면 도로, 토지안전대책, 라이프라인, 주택, 농지·잉어 양식장, 공공기능, 투우, 주민 창업, 경관 창조, 피재지 장소 보존 활용, 기타 부흥시책이다. 물질적 자원과 문화적 자원 양쪽 모두 부흥 플랜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우선 주목하고 싶은 것은 ‘경관의 창조(景観の創造)’라는 항목이다. 여기에 대해 ‘새로운 꿈이 있는 지역의 부흥을 위한 대처(新しい夢ある地域の復興に向けた取り組み)’의 세 가지 기본조건 중 첫 번째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1. 야마코시다운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 창출합니다.
  - ① 복구할 주택의 경관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된 디자인으로 합니다.

- ② 지역경관을 악화시키는 건물이나 공작물 설치를 제한합니다.
- ③ 지역을 특징짓는 산의 경관이나 계단식 논·계단식 연못 등의 경관을 유지합니다.

경관의 부흥에 대해 앞에서 말한 피재지 교류회에서 나가시마씨는 ‘우리들은 잃어버린 생활 기반을 우리들 생활 기능의 향기가 나는 경관으로 지금은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関西学院大学災害復興研究所編 2005:44].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야마코시의 아름다운 계단식 논 풍경은 지역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중요한 문화적 자원일 뿐만 아니라 ‘생활 기능의 향기’가 나는 것이다. 따라서 경관의 부흥은 지역 아이덴티티의 부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기능 회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인 레벨에서도 사람들의 생활 기능 회복을 촉진하는 힘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 비단잉어나 투우 등의 문화적 자원의 부흥도 중심적인 과제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가지 기본조건 중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2. 야마코시의 자산을 물려받아 살립니다.

- ① 피재지 주택의 특색 있는 재료 등을 보전하여 유효하게 활용합니다.
- ② 비단잉어, 투우, 자연, 사람들의 유대 등 야마코시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소중하게 계승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활력을 위해 활용합니다.

‘야마코시 고유의 문화적 자산’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적 자원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계단식 논외의 풍경이나 투우 등의 문화적 자원은 야마코시 지역 커뮤니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상징의 부흥이 도로나 주택의 부흥과는 별개의 의미를 가진 지역 커뮤니티의 상징적 부흥을 촉진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이들 상징의 부흥은 상징적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들 상징을 부흥시키는 것이 그대로 상징적 부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 두어야 한다.

계단식 논이 풍경이나 투우 등은 지역 커뮤니티의 상징이라 생각되어지지만, 그것은 동시에 지역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일부이기도 하다. 커뮤니티 구성요소 중 일부의 부흥을 전체의 부흥이라 간주하려는 생각은 뒤르켄이 모의적 의례의 설명에서 구별한 공감적 주술의 두 가지 원리 중 하나의 원리인 전염적 주술과 마찬가지로 접근에 의한 관념에 입각한 것이다. 여기에는 뒤르켄이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고유의 창조적 기능은 없고, 전염적 교통밖에 없다.

물론 계단식 논의 풍경 등 문화적 자원이 커뮤니티의 상징인 이상 이들을 부흥시키는 것이 상징적 부흥을 촉진하는 매우 유효한 수단임은 분명하다.<sup>7)</sup>

중요한 것은 이들 문화적 자원의 부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사람들 사이에 부흥감을 만들어 내는 부흥의례를 적절히 실시하는 것이다.

#### 4.3 상징 부흥의 문제점

이와 같이 야마코시무라의 사례는 일찍부터 도시에 대한 문화적 상품, 관광자원으로 계단식 논, 잉어 양식장, 투우 등을 개발하고 있었고, 야마코시무라 부흥 플랜도 이들 대외적 자기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자세가 농후하다. 외부의 시선으로 구성된 지역의 자기 이미지를 잘 조작할 수 있는 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외적인 자기 이미지를 표현하는 문화적 자원의 부흥은 촌의 상품가치 회복, 향상과 일체가 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상품들의 생산에 관계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품가치와 직결된 문화적 자원의 부흥은 결과적으로 마을 내의 사람들 사이에 경제적인 불균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잉어양식 등의 부흥에 대해서는 이 점을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투우의 경우에는 그 운영 배경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도 마을 사람들이 비교적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오락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부흥을 위해 활용할 자원으로서는 훌륭하다고 생각된다. 이 점은 12가지 조건의 분류방식에도 반영되어 있다.

7) 커뮤니티 상징의 문화적 자원 정비에 대해 줄고[山 2002]에서는 고분의 보존을 사례로 검토하고 있다.

마을 투우장에 사람들이 모여 거기에서 박수와 환성이 터질 때, 사람들은 부흥감을 충분히 맞볼 수 있지 않을까. 이 경우에 투우의 부활은 상징적 부흥을 연출하는 부흥의례로서의 역할을 달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문화적 자원의 부흥에는 이외에도 생각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대외적 자기 이미지가 부흥함으로써 그 배후에 있는 부흥 과정의 생활환경적 측면이 보이지 않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원래 대외적 자기 이미지는 매스컴 등을 통해 보도되기 쉬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화적 자원의 부흥이 외부 시선으로는 생활환경적 측면도 포함된 부흥이라고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생활환경적 측면의 부흥에 대한 관심이 낮아져 버릴 위험성이 있다. 이 점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아마코시 부흥 플랜은 상징적 부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흥 플랜의 모델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5. 상징의 양의성

### 5.1 문화적 자원의 양의성

2005년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재해부흥제도연구소의 현지조사로 후쿠오카현(福岡県)의 겐카이지마(玄界島)섬 피해 현장과 피난주민의 가설주택 등을 방문했다.

겐카이지마섬은 어항(漁港)을 중심으로 섬 경사면에 부채 모양으로 가옥이 모여 있고, 각 가옥에서 섬의 중심인 항구까지는 '간기단(がんぎ段)'이라 불리는 좁은 석조 계단 골목을 오르내려야 한다. 사람의 이동, 물자의 이동, 모두 기본적으로는 도보로 이동한다. 경량의 짐을 섬 위까지 옮기는 레일이 갖춰져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도보이다. 집 공사를 위한 건축자재도 모두 인력으로 옮긴다. 인력이 전부였기 때문에 섬 주민의 상호부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이나 각 세대가 개별로 제멋대로 행동을 하는 것은 어렵다. 결과적으로 커뮤니티의 결속력은 불가피하게 견고하게 된다. 민속학자 미야모토 쓰네이치(宮本常

—)도 간기단에 주목하여 저서 『일본의 이도(日本の離島)』에서 겐카이섬의 커뮤니티 결속력이 강하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쇼와30년대 불황을 섬 주민 모두 하나가 되어 절약하는 생활로 극복한 것이 섬의 커뮤니티 결속력을 견고하게 했다고 한다.

간기단은 섬 커뮤니티의 견고한 결속력을 만들었고, 이러한 섬 커뮤니티의 견고한 결속력이 부흥을 촉진하는 힘이 된다고 매스컴도 높은 평가를 내리며 보도하고 있다. 간기단은 섬 부흥력의 상징인 것이다.

그러나 간기단은 섬 주민에게 불편한 섬의 생활환경을 나타내는 대명사이기도 하다. 섬 생활, 섬 문화 전체를 긍정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적 존재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외부인들이 간기단의 민속학적 혹은 문화재적 가치를 안일하게 찬양하는 것은 잃어버린 과거의 이상적인 커뮤니티상을 겐카이섬에 억지로 떠안기게 될 위험성도 있다. 그 결과 자신들의 노스텔지어를 충족시키기 위해 섬 주민을 불편한 생활환경 속에 가둬버리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겐카이섬의 부흥은 보다 좋은 생활환경의 정비라는 토목공학적인 발상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커뮤니티의 결속력을 높이는 물질적인 기반이며 또한 생활환경의 최대 속박이기도 했던 간기단은 해체되고, 자동차가 주행가능한 도로의 정비가 우선 요구되어진다. 생활환경을 편리하고 쾌적한 상태로 개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히 요구되어진다.

겐카이섬에서는 개발주의적인 부흥 사업의 결과로 나타나리라 예상되는 커뮤니티 결속력의 이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현재 겐카이섬의 부흥 계획 기획자는 간기단이 가지고 있던 커뮤니티 유지기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간기단을 대신하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모색하고 있다.<sup>8)</sup>

## 5.2 종교적 상징의 문제

전통적인 커뮤니티에는 많은 경우 커뮤니티를 상징적으로 통합하는 종교적 장치가 존재한다. 겐카이섬에서도 고다카신사(小鷹神社), 와카미야신사(若

8) 겐카이섬의 부흥계획에 관계하고 있는 야마구치 겐지(山口憲二)씨로부터 얻은 정보에 의하면 섬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을 배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宮神社), 지장당(地藏堂), 관음당(觀音堂) 등 재해를 입은 신사를 비롯한 몇 가지 제사시설이 존재한다.

지장당과 관음당은 개인 소유이고 섬의 유지들이 모여 그룹으로 신앙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와카미야신사는 주로 어업관계자들이 믿고 있고, 고다카신사는 폭넓게 섬 주민들이 믿고 있으며 각각 섬에서의 위상이 다르다.

고다카신사는 집락촌의 남서쪽, 항구에 면한 고지대에 있다. 고다카신사의 유래는 각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유리와카(百合若) 전설에 기초하고 있다. 신사의 명칭인 고다카는 유리와카대신(百合若大臣)이 기르고 있던 미도리마루(緑丸)라는 이름의 매를 제신(祭神)으로 하고 있던 것에 유래한다. 이전에는 고다카신사가 구단의 명칭인 매를 제신으로 하고 있어서 당시 그 지방의 프로야구단 다이에 호크스의 오너가 우승기원을 위해 여기를 방문했다고 한다. 우리들이 조사를 위해 방문했을 때에는 도리이(鳥居)도 파괴되었고 경내는 꽤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의례에 대한 제작론적 시점에서 상징적 부흥을 생각할 때 본래는 가장 유효하게 활용해야 할 상징은 이들 전통적인 제사시설이다. 하지만 섬의 전통적인 제신시설을 수복, 재건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후쿠오카시내의 가모메광장(かもめ広場)이라 불리는 피난주민 가설주택에서 섬주민이 마음을 의지하는 고다카신사의 재건을 바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교분리 원칙 때문에 특정 종교 제사시설의 재건을 위해 공적인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다.

물론 행정이나 지역커뮤니티가 특정종교의 제사시설에 편을 드는 것은 어렵다.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상징적 부흥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커뮤니티의 존립이 상징적인 의미체계로 지탱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면 특정종교의 제사시설도 커뮤니티의 상징적 부흥을 위한 귀중한 상징적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커뮤니티의 상징적 자원의 보존, 정비를 위해 공적자금을 도입하는 것은 결코 엉뚱한 발상이 아니다. 문화재 제도 안에서 각지의 전통적인 신사의 제례 등이 무형민속문화재로 보존되기 때문에 그 때 사용되는 다시(山車, 축제 때 사용되는 장식을 한 수레) 등의 도구들도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피재 커뮤니티의 상징적 부흥을 위해서는 현상의 문화제 제도를 참고하면서 커뮤니티의 종교적 상징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 5.3 상징의 곤란

이상과 같이 커뮤니티 결속력의 상징으로 외부에도 알려져 있는 간기단이 동시에 섬의 불편한 생활의 대명사이기도 한 상황은 섬의 귀중한 상징적 자원을 상징적 부흥에 그대로는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 고다카신사 등의 전통적인 종교적 상징도 정교분리 원칙 때문에 곧바로 상징적 부흥을 위해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겐카이지마섬은 상징의 부흥이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상징적 부흥은 매우 곤란한 환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간기단에 대해서 말하면 모든 것을 종래와 같이 그대로 보존,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이상, 기본적으로는 해체 혹은 개량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인 가치를 가진 문화적 자원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그 일부를 보존하려 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것이 섬주민에게 부흥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지 어떨지는 의문이다.

단 장래에는 섬의 불편한 생활환경의 대명사라는 부(負)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커뮤니티의 결속력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상징으로 그 일부가 기념물과 같은 형태로 보존될 가능성도 있다. 그 경우에는 간기단 기념물의 제막식 등 섬주민이 부흥감을 실감할 수 있는 부흥의례를 실시함으로써 간기단을 부흥의 상징으로 재생시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마치며

이제까지 인류학의 의례론, 상징연구의 성과를 원용하면서 피재 커뮤니티의 재생에는 토목공학적인 생각에 기초한 복구, 부흥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아이덴티티인 상징적 자원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부흥감

을 느낄 수 있도록 부흥의례를 적절하게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 상징적 부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부흥이 상징적인 개념이라는 인식을 부흥에 관해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 특히 부흥계획의 담당자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부흥이 상징적인 개념인 이상 부흥은 의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징적 부흥이라는 생각은 피해 커뮤니티의 재생에만 관계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나르 스티글레르(Bernard Stiegler)는 하이퍼 인더스트리얼(hyper industrial) 시대를 맞이한 현대사회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을 만들어내는 힘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경고하고 이것을 '상징의 빈곤(Misère symbolique)'이라 부르고 있다.

상징의 빈곤이라는 말에서 내가 의미하는 것은 심벌(상징)의 생산에 참가할 수 없게 된 것에 유래하는 개체화의 쇠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심벌이란 지적인 생의 성과(개념, 사상, 정리(定理), 지식)와 감각적인 생의 성과(예술, 숙련, 풍속) 양쪽을 가리킨다. 그리고 개체화의 쇠퇴가 퍼져 있는 현상은 상징적인 것의 와해, 즉 욕망의 와해를 일으킬 것이 틀림없고, 바꿔 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적인 것의 붕괴, 즉 전면적인 전쟁상태에 이르는 것이다[스티글레르 2006=2004:40].

정보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사람들에게 획일화된 상징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상징하는 힘 그 자체를 감퇴시키고 있다. 스티글레르에 의하면 이것은 사회적인 것 그 자체의 붕괴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상징적 부흥이란 사람들의 상징하는 힘의 부흥이어야만 한다.

상징적 부흥이라는 개념은 피해 커뮤니티의 재생에 머무르지 않고 상징의 빈곤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도 본질적인 의미를 가진다.